

## 돌고 돌아가더라도..., 한 번의 기회만 잡으면 된다

이 재 권

• 1985년 1월 생

• (광명) 광명북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 2016년도 5급 공채 교정직렬 합격



### I. 들어가며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수 있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5급 공채 수험생들에게 봄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압박의 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에게는 2차 시험에 정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합격자에게는 진로에 대한 큰 고민을 던져주는 계절이니까요. 저 또한 1차 시험에서의 낙방을 무수히 겪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로의 전환 등을 경험한 장수생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합격수기를 쓸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도 공부가 안 잡힐 때 여러 선배님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었고, 저처럼 오랜 수험생활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 보려 합니다.

### II. 수험기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일반행정직렬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대 후 2008년부터 5급공채 일반행정직렬을 목표로 시험에 도전하였고, 본격적으로는 2009년에 신림동에 입성하였습니다. 신림동에서는 학교 선배님들의 지원으로 2인 1실의 원룸에서 같은 고시생 룸메이트와 생활을 하였고, 2014년 초 까지 약 5년여 동안 일반행

정직렬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승진보는 1회의 1차 시험 합격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PSAT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1차 탈락 후 불확실한 다음 해의 2차를 위해 2차 서적을 읽고 있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신림동에서 나와 부모님이 계시는 광명으로 자리를 옮겼고, 5급 공채 시험을 포기하고 경찰간부후보생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의 시립도서관을 출퇴근하며 인터넷 강의를 통해 경간부시험에 전념하였고 운이 좋게도 마침내 2015년 말에 있었던 경간부시험에 필기합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조한 체력시험 성적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고, 이때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필기시험 합격소식을 듣고 당연히 최종까지 합격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셨던 부모님과 주위의 친지분들을 생각할 땐,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혹시나 모를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2016년도 5급 공채 교정직렬에 원서를 넣어 놓았었고 다행히도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반행정직렬에서 교정직렬로 전환한 이유는 물론 일반행정직렬의 PSAT의 벽이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경간부 시험을 준비하면서 형법, 형소법 등의 과목을 조금이나마 접해 보았고,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합격확률이 높은 직렬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교정직렬에 대한 2차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4개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집에서 통학하며 시립도서관에서 교정직렬 2차과목 공부에 집중했고 운이 좋게도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 Ⅲ. 공부방법

#### 1. PSAT에 대하여

저는 PSAT 시험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PSAT 공부방법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PSAT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린다면, 요즘과 같이 PSAT 커트라인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생각할 때, 자신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직렬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본강의나 기출분석을 통해 자신의 최고치의 점수까지는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최고치 점수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급 공채가 꿈이라면 합격만 된다면 그것이 어떤 직렬이든지 보람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또한 사실 처음부터 교정직

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오랜 수험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교정직렬을 선택하고 2차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교정직렬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항상 흔들리지만, 선택을 하고 나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PSAT로 인해 재경직렬, 일행직렬, 지역직렬, 소수직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위의 시선보다 자신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관계없이 자랑스런 5급공채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 2. 제2차시험 과목

### (1) 전반적인 공부방식

우선 제가 교정직렬 2차 과목에 대한 순수한 공부기간이 짧은 편이라서 2차 5과목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가 부족할 수 있으며 최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를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의 2차 과목 공부방식이 특별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아침 7시 ~ 저녁 9시까지를 공부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저녁 10시나 11시까지 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실제 공부시의 집중력을 보았을 때는 저녁 9시까지가 좋았고, 충분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과목별 공부의 경우, 저는 하루 10~12시간의 순 공부시간동안 되도록 5과목을 모두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같은 과목을 3~4시간 이상 볼 경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 과목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새로운 과목을 볼 경우 리프레쉬되는 느낌이 좋았고 저에게는 이러한 공부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목 별 시간배분은 유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과목의 경우, 제가 좀 약하다고 생각했던 형법이나 형소법은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볼 수 있도록 각 과목 공부를 하면서 스태워치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공부하였고, 과거 일반행정직렬 공부를 하면서 비교적 많이 보았던 행정법의 경우 1~2시간을 할애하여 감각을 유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선택과목의 경우, 저는 심리학을 선택하였는데 다른 필수과목에 비해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어서 머리가 많이 아플 때 1~2시간씩을 할애하였고, 중요하지만 생소한 교정학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을 할애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루에 보아야 하는 진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공부하였습니다.

## (2) 교정학 (61점)

교정학은 제가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고 강의지원이 어려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합격한 선배님들을 통해 7·9급 강의용 교정학 교재를 기본서로 두고 공부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저도 가장 유명하다는 『메카교정학』을 기본서로 삼아서 공부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대한 기본서를 모두 꼼꼼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교정학 기출문제 10개년 정도를 뽑아서 기출의 스타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정학 기출문제에 대해 모범답안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고, 중요한 큰 주제가 무엇인지, 기출의 스타일이 지엽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기본서를 읽어 나갔습니다. 기본서 자체가 객관식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너무 세부적이거나 주관식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 예컨대 교정의 역사나 세세한 수용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한번 훑고 과감히 스킵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세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더라도 교정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 수용자의 권리, 즉 접견교통과 같은 파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의 각 요건을 어느 정도 세세하게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 스킵 할 부분과 숙독해야 하는 부분을 골라낼 수 있는 감각을 기출분석과 기본서 통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교정학이라는 과목은 크게 교정학과 형사정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교정학 파트가 중요하지만 올해에도 형사정책 파트인 보호관찰에 관한 사례가 나왔듯이 형사정책 파트도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거나 쉴 때, 스마트폰을 통해 틈틈이 형집행법을 가볍게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정학은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교정학의 첫 파트인 교정의 이념에 대한 큰 줄기를 잡고 나아가신다면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문의 경우에도 교정처우 모델에 대한 주제로 큰 문제가 나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비중을 두어 공부한 것이 운이 좋았던 점입니다. 교정행정에 있어 수용자에 대한 규율을 중요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재사회화를 중요시 할 것이냐는 큰 쟁점이고 현재에는 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큰 흐름을 잡고 공부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교 강의에서 교정학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회가 있으시다면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큰 맥락의 이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정본부에서 발간하는 『월간교정』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틈틈이 읽어 보신

다면 실제 교정행정이나 시사적인 내용에 대한 소스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사례들을 교정학 답안이나 면접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의 다른 합격자분들을 살펴보면 교정학에 대한 논문이나 교수님이 저술하신 교정학 교재도 읽어본 경우가 있었고 저보다 교정학에서 더 고득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이러한 노력 또한 좋다고 보지만, 저처럼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와 기본서 1권에 집중하시는 것도 합격권의 점수를 획득하는 데 지장은 없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 봅니다.

### (3) 형사소송법 (57점)

형사소송법은 보통 사법시험용 강의를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간부시험 준비 때 어느 정도 접하였기 때문에 기본강의를 과감히 패스하고 바로 사례집을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정주형 강사님의 『사례형사소송법 사례강의안』을 기본서로 삼아서 회독을 들렸습니다. 제가 본 사례집 안에 형사소송법 사례풀이에 대한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례집 안의 주요 문제들을 풀 수 있다면 합격권의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른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학 과목의 특성상 주요 조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례집을 풀면서 옆에 법전을 두고 조문을 꾸준히 찾아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운이 좋게도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경간부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증거법 파트의 전문법칙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로 출제되어 합격권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부족했던 제가 공부한 방법이고 일반적으로는 사법시험 강의를 통해 기본을 잡고 사례집 풀이, 마지막으로 요약집을 통한 정리식의 공부가 정석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접했던 분들이라면 저와 같이 자신과 맞는 사례집을 선택하고 회독수를 늘리는 방법 또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4) 형법 (52점)

형법 또한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법시험용 강의를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경간부시험 준비 때 객관식용 형법강의를 들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바로 주관식 사례집을 통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형법을 주관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라 초반에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형법의 특성상 죄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옆에 법전을 놓고 사례를 풀면서 이러한 사안이 형법 제 몇 조의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생각하며 회독수를 늘리니 조금씩 익숙해 질 수 있었습

니다. 사례집으로는 처음에는 이용배 강사님의 『형법사례의 맥』을 통해 공부했고,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중에는 이재상 강사님의 『Case 바이블』을 기본서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용 기본강의를 듣지 않아 각 죄에 대한 학설과 리딩 판례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틈틈이 이인규 강사님의 『사례문제대비 형법 Capsule』도 병행해서 읽었습니다.

형법의 경우 난해하고 수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요 사례집에 나와 있는 이론과 학설, 판례만 정확히 숙지하더라도 합격권의 점수를 얻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사례집의 사례문제는 대부분 중요한 리딩판례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실전에서의 시험문제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익히면 좋습니다. 따라서 형법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5) 행정법 (43점)

행정법은 과거에 일반행정직렬 공부시절 많이 접해 보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보여주듯이 자칫했다가는 합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행정법 점수를 짜게 주었다는 평이 있고, 합격생들의 행정법 점수 또한 50점을 넘는 경우가 고득점에 속하는 상황이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행정법 공부방법 또한 사례집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선균 강사님의 『행정법 엑기스』와 『행정법 엑기스 사례연습』을 병행해서 보았으나, 다른 과목 공부시간이 부족하여 사례집만 보았습니다. 사례집을 풀면서 학설과 판례, 사례풀이 방법론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어느 정도 공부되면 답안 작성의 틀이 잡히므로 막판에 가서는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저처럼 방어적으로 전략을 짜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 (6) 심리학 - 선택과목 (35.33점)

저는 선택과목으로 심리학을 선택하였습니다. 보통 교정직렬 수험생의 경우 심리학과 사회학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에 흥미가 가서 이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심리학 교재로는 주로 학지사의 『심리학의 이해』나 『현대심리

학의 이해』를 많이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교재를 『심리학의 이해』로 삼아서 여러 번 읽었고, 『현대심리학의 이해』를 참고삼아 읽었습니다. 심리학도 교정학과 마찬가지로 강의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훑어보고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는 지에 대한 감각을 익힌 후, 교과서를 읽어나갔습니다. 심리학도 강약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과서를 여러 번 읽다 보면 주관식으로 나올 만한 주제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컨대 생물심리학 파트의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생물학적인 내용은 출제확률이 적다고 보아 가볍게 훑고 넘겼으며 각 파트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미출제된 부분이나 출제된 지 오래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상이 항상 적중하는 것은 아닌 것이, 올해 시험에 대한 저의 예상으로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발달심리학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최근 기출되었던 프로이트의 이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저의 예상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심리학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 놓는다면 어찌되었든 답안을 쓸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타 법과목과 달리 심리학은 각 파트별로 굵직굵직한 이론이나 주제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완벽한 암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답안을 쓸 수 있고, 점수 또한 생각보다 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신감 있게 심리학을 선택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른 합격생들의 경우 다른 심리학 교과서를 여러 권 보고, 나름대로의 서브노트까지 만든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간적 여력이 된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회독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고, 회독을 늘리면서 각각의 대목차와 소목차, 심리학자와 그의 이론·실험 등을 중점적으로 암기하려 노력했습니다.

### 3. 면접준비

2차 시험을 치르고 솔직히 합격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고 2016년 말에 있을 경간부시험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2차 시험 합격 소식을 들었고, 부랴부랴 면접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차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4주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림동의 MGI학원의 면접 종합반을 등록하고 면접준비에 임했습니다. 학원의 면접강의는 3주간의 뽐뽐한 스케줄로 이어졌고, 백현관 선생님의 강의와 실전 리허설, 2차 합격생들 간의 모의 면접, 그리고 개별적인 조인트 스터디 등을 통해 5급 공채 면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탈락하는 소수직렬 면접의 특성상, 불안한 마음이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꼴지를 면하자는 마음가짐이 아닌 3명 중에 면접을 가장 잘 보

자라는 마인드로 임했고, 이러한 자신감과 여러 가지 실전 스킬들을 면접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를 몰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면접학원 강의와 실전연습이 끝나고, 합격생들과 저녁 스터디를 하였고 집에 도착해서도 거울을 보며 면접연습을 밤늦게까지 하였습니다.

면접 준비 기간이 힘들다면 힘들었지만, 공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내가 교정직렬에 왜 지원을 하였고, 국가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짐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준비를 하면서, 교정직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사회의 어두운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의 실수를 범한 국민들에게 반성과 교정·교화의 기회를 주고 보다 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람된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IV. 마치며

오랜 기간 동안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앞으로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장차 국민을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라는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5급 공채 교정직렬에 막 뛰어드신 수험생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장수생으로서 많은 어려움에도 묵묵히 공부를 이어나가고 계실 수험생분들, 시험은 그것이 언제라도 한 번만 합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